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 1. 독해& 배경지식

### 감각적 경험+

지성은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감각적 경험에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 이성 중심 철학

**지성**

지성에는 '범주'라고 불리는 타고난 구조가 있음. 이 타고난 개념들을 통해 경험과 인식이 가능

**이성**

### 지성과 이성의 차이

지성은 개념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성은 이 개념을 종합해서 판단을 만들고 이를 추론하는 것

### 칸트의 이성 중심 철학 다시 보기

이성 중심 철학과 경험 중심 철학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경험 없이도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유 관념이 있는지에 있다. 이성 중심 철학은 선형적 본유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경험 중심 철학은 이러한 본유 관념을 부정한다.

철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인 칸트를 통해 이런 철학의 구분을 이해해 보는 것이 좋다. 칸트는 경험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인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인식 능력으로 지성, 감성, 상상력을 이야기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성, 감성 그리고 상상력 같은 인식 능력은 감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인식 능력의 기반에는 선형적인 규칙과 법칙들이 존재하게 된다. 실제 '히고 딱딱한 분필'을 인식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다. '인식했다'는 이러한 선형적 개념들이 외부 사물에 달라붙어버린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외부 세계와의 접촉인 경험은 주로 감각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많은 경우 해석된다. 그런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은 그저 감각적인 내용만을 받아드리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인 인식은 주어진 감각적인 내용을 일정하게 구분하고 분류한다. 이런 분류의 기준점 즉 선험적인 개념이 경험 그 자체에 있다고 할 때 이런 능력을 지성이라고 일컬으며 감각적인 경험 외부에 존재하는 이성과는 구분된다.

이처럼 지성 같은 능력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개념이 감각적인 경험에 달라붙어 세상을 인식한다고 보았던 칸트는 이 타고난 개념들을 범주를 활용해 설명한다. 그는 지성이 타고나는 선험적인 '순수형식'을 범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범주를 양, 질, 관계, 양상 등 크게 네 부류로 나눈다. 이 범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 인과성과 필연성이다. 인과성은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필연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은 인과적 필요성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통해 이해해 보자면 공기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떨어트리면 낙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문장에서 원인으로서 '앞서 일어난 상황'과 결과로서 '뒤이어 일어난 상황'간의 필연성이 바로 인과적 필연성이다. 이 인과적 필연성이 인정되어야 올바른 명제가 만들어진다

칸트는 인과성을 관계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필연성을 양상의 범주의 속한 것으로 본다. 그는 인과성과 필연성이라는 타고난 형식이 경험되는 내용에 적용해 그 내용들을 인과적 필연성으로 엮어냄으로써 보편적이고 올바른 명제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 2. 정리& 어려웠던 부분 이해

<정리>

\* 경험중심 VS 이성중심- 타고난 개념의 유무

\* 이분법적 구조- 인문 지문의 특징

\* 감각과 경험-

경험은 주로 감각과 연관 즉 보고 느끼는 것으로 주로 해석

BUT 경험과 인식에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 타고난 기준과 개념이 있음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지성의 경우에는 타고난 범주가 있고

이 범주들이 감각적 경험에 달라붙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인과적 필연성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이해

#### 갑자기 등장한 인과성과 필연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 원리1- 글의 통일성

: 한 문단은 주제 중심으로 같은 혹은 연관된 내용들로 채워진다. 특히 '하지만' 같은 연결사가 없다면 흐름상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된다.

즉 문장에서 중요한 결론을 밑줄치고 연결시켜보면 자연스럽게 문단의 결론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앞뒤 말들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 \* 원리2- 용어가 다를 때

: 용어가 다르다면 대부분 다른 개념이다. 주로 '같다'보다는 '연관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자.

여기서는 인과성과 필연성은 새롭고 낯선 개념이지만 지성이 타고난 범주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과성과 필연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 타고난 개념들이 감각적 경험에 달라붙기에 경험을 통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앞 뒤 문단을 보면 지성의 선험적 개념은 경험 그 자체에 있고 이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인과성과 필연성 역시 이성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바른 읽기 자료

#### 칸트의 철학

극단을 달리던 이성중심의 철학과 경험중심의 철학을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한 학자인 칸트는 그의 책 「순수이성비판」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를 묻는다. 판단이란 주어와 술어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런 판단은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으로 구분된다. 분석판단에서는 술어가 주어가 이미 포함하는 성질을 서술한다. "국어 교과서의 모양은 네모이다"가 분석판단의 한 예이다. 반면 종합판단에서는 술어가 주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나 성질을 말한다. "국어 교과서는 더럽다"가 종합판단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더럽다는 서술어는 국어 교과서에 새로운 의미나 특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요한 건 종합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술어를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 국어 교과서가 더럽다는 것은 교과서를 감각과 유사한 개념의 오성을 통해 인지하고 지각할 때 술어로서 가능하며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기에 종합 판단은 결코 보편적일 수 없다. 교과서가 더럽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는 참이더라도 앞으로의 경험에 대해서까지 보편적으로 참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그런데 경험과 무관하더라도 종합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 더하기 2는 3이다.'라는 명제가 그렇다. 이 명제는 1더하기 2라는 주어가 3이라는 술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판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거나 상대적으로 때에 따라 옳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1+2=3임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경험과 무관하게 제시되는 종합 판단을 "선험적 종합판단"이라고 말한다.

칸트는 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순수이성비판> 목적으로 삼는다. "경험을 초월한 종합판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판단을 사용하는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철학의 '형이상학'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칸트가 증명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물음이다.

칸트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선험적인 개념이 공간과 시간이라고 본다. 그는 이 선험적인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활용한 판단에서는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형이상학의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증은 우선 칸트가 지성과 이성을 구분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칸트 이전에는 지성은 이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극심한 대립을 이루었던 합리론과 경험론에서도 지성을 이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실제 이성 대신 지성을 사용하면서 합리론의 경우에는 선험적인 지성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험론에서는 경험 없는 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칸트에게 이성은 감성이나 지성보다 더 높은 층위에서 활동하는 개념으로 지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칸트에게 이성은 '추론'으로 작동한다. 지성이 개념들을 형성한다면 이성은 이 개념들을 결합하여 판단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성이 이 판단들을 결합하여 추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성은 이에 멈추지 않고, 개념들과 판단들을 끊임없이 결합하여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떨어진다/사과/굴 같은 개념들은 지성에 의한 개념(시간과 공간)들이거나 경험이 가능한 개념이다(사과 굴 떨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종합돼서 "사과가 떨어진다" 같은 판단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판단들을 결합하여 "물체는 떨어진다." 같은 한 층 높은 추론이 만들어진다. 이때 개념들을 종합해 판단을 이끌고 이 판단을 결합해 추론하는 것이 이성이다.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서 이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성을 활용해 '물체가 떨어진다.'까지 추론하는 건 합당하지만 이성은 더 높고 완벽한 통일성을 원하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존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이 물체를 떨어지게끔 만들었다.' 처럼 당위적이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추론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이성의 경향성을 칸트는 '이념'이라고 부른다. 칸트는 필연적인 이성의 활용까지는 긍정하지만 '이념'의 부분까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성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성의 사용을 '경험'이 가능한 영역까지 한정시키고 '경험'이 개입할 수 없는 당위적인 부분까지 늘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독해 개념>

### 1. 글의 서론에 집중했는가?

① 서론에서 정의 비교 대조 상관 관계에 집중해 글을 읽었나?

서론 부분에서 복잡한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짐. 따라서 미리 정리 하자

구체적으로 첫 문단에서

정의(란, 이란, .로 정의 된다. ~인 A. 은, 는)가 느껴지거나

EX) 상동 염색체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로

비교 대조(이와 달리 반면 비해 만)가 느껴지거나

EX) X개인주의는 사회를 개인의 총합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반면 Y공동체  
주의는 사회를 개인의 총합보다 더 큰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여기서는 공동성이 중요하다.

상관 관계(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간다 A= C/B) 느껴지면

EX) 공정한 보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나눈 금액이 사고 위험률과 같아  
야 한다

바로 밑줄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② 완결성을 고민했는가?(심화)

이 부분은 만점에 근접하면 하자.

우리가 보는 글에는 완결성이 있다.

즉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뒤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뒤에서 해결이

질문을 했으면 그 답이

개념어나 형용사를 제시했으면 설명이

비교 대조 구문에서 X가 나왔으면 뒤에서 Y가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뒷내용을 예측한다.

결과를 바꾼다- 서성수 국어

#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2017

## 서성수 국어/ 독서 배경지식&피드백2

### 2. 각 문단에서 주제를 확인하고 이해했는가?

①주제를 찾기 위해 각 문단에서 서술어 부분(수업의 핵심) 밑줄 치고 연결했는가?

문단은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가진다.

**문단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주제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에 퍼져있다.**

문제는 주제 문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단순하게 핵심어 하나만 찾고 글의 주제를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제를 뒷받침하거나 다른 말로 표현한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글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는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주제 독해는 주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말을 먼저 정리하고 여기서

핵심어를 찾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바로 문단의 결론인 주제를 찾지 말고 문장의 결론인 서술어를 활용한다.

우선 글을 읽어가면서 문장의 결론 즉 서술어에 밑줄 친다.

**글을 읽을 때 이 서술어 부분에 집중해서 읽고 문단이 끝나면 빠르게 3초 이내로 연결한다**

CF) 무엇이 서술어인가?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의 생각이지만 중요한 서술어는 주로

**일반적 서술어** EX) 상동 염색체는 인간의 유전 과정을 나타낸다.

**안긴 문장으로 제시 되는 설명** EX) 본유 관념을 부정하는 경험론은

**시간 조건 가정** EX) 광자가 입사될 때 로 제시된다

**정의** EX) 염색체는 유전물질을 딸세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